

| | | | | |
|---|---|---|-------|-------|
| 제 목 | 국 문 | 의료보험 진료비 증가율 결정요인의 추이 분석 | | |
| | 영 문 | Changing Pattern of Determinants of the Increase Rate of the Health Insurance Expenditure | | |
| 저 자 및 소 속 | 국 문 | 장원기, 문옥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정책학 교실 | | |
| | 영 문 | Won Gi Jhang, Ok Ryun Moon Dept. of Helath Policy & Administration, School of Public Health, Seoul National University | | |
| 분 야 | 보건 관리 | | 발 표 자 | 장 원 기 |
| 발표 형식 | 구연 | | 발표 시간 | 15 분 |
| 진행 상황 | 연구완료 () 연구중 (O) → 완료 예정 시기 : 96 년 12 월 | | | |
| <p>1. 연구 목적</p> <p>1970년 이후 20년간의 우리 나라의 GNP 대비 의료비 증가율이 구미제국의 그것을 훨씬 앞질러 미국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현 상태에서, 의료비의 급상승을 억제하고 적절한 수준의 국민의료비를 유지하는데 노력이 경주될 필요가 있다. 이 연구의 목적은 국민의료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의료보험 진료비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들을 분석하여 보건의료 정책개발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는데 있다.</p> <p>2. 연구 방법</p> <p>의료보험 진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확률론적 모형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며, 이러한 경우 풍부한 기초자료가 존재한다면 의미있는 요인을 추출해 낼 수 있는 반면,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. 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결정론적 모형은 의료보험 진료비의 변동 전체를 설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요인의 수가 소수로 제한된다.</p> <p>의료보험 진료비의 증가를 결정요인별로 구분하는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몇몇 연구자에 의해 간간이 시도되어 왔던 대로 수요측면을 의료보험 적용자 수 및 수진율로, 공급측면을 건당진료비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방법을 기본으로 하였다.</p> <p>M을 의료보험 총진료비, P를 의료보험 적용자 수, A를 총 수진건수, D를 총 수진일수, S를 제공된 의료서비스 총량으로 할 때, A/P는 수진율, M/A는 건당 진료비, M/S는 의료보험수가, S/D는 일당 서비스 강도, D/A는 건당 내원일수를 나타내며 다음과 같은 항등식이 성립한다.</p> $M = P * \frac{A}{P} * \frac{M}{A}, \text{ 그리고 } \frac{M}{A} = \frac{M}{S} * \frac{S}{D} * \frac{D}{A}$ | | | | |

앞의 식에서 두 연도의 비교를 하면

$$\frac{M'}{M} = \frac{P'}{P} * \frac{A'/P'}{A/P} * \frac{M'/A'}{M/A} \quad (M'P'A' \text{ --- 다음년도, } MPA \text{ --- 전년도})$$

등식의 관계가 곱셈의 형태이므로 각 구성요소간의 상대적 비중을 보기 위해서는 공통의 밑수를 가진 승수를 비교하기 위해 Log변환을 하며, 따라서 M'/M (연도간 총진료비 대비)을 구성하는 각 요소의 구성비는 다음과 같이 된다.

$$\log(P'/P) : \log\left(\frac{A'/P'}{A/P}\right) : \log\left(\frac{M'/A'}{M/A}\right)$$

연간 총진료비 증가율 X $\left[\frac{(M'-M)}{M} * 100\right]$ 의 각 구성요소간의 비도 M'/M 과 동일하므로, 다음 등식이 성립하면서 각 부분이 총진료비 증가에 미친 해당 결정요인의 기여도가 된다.

$$X = X * \frac{\log(P'/P)}{\log(M'/M)} + X * \frac{\log\left(\frac{A'/P'}{A/P}\right)}{\log(M'/M)} + X * \frac{\log\left(\frac{M'/A'}{M/A}\right)}{\log(M'/M)}$$

본 연구에서는 1977년 이후 의료보험 통계연보를 이용하여 보험 종별 및 진료형태(입원, 외래)별로 이러한 결정요인들이 진료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.